

위치어 ‘앞’·‘뒤’·‘전’·‘후’의 의미론적 고찰

범 기 혜 *

I. 서 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관찰해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영역은 人間(human), 事物(thing), 空間(space), 時間(time)의 네 영역으로 나뉜다. ‘人間’은 우주라는 ‘空間’ 속에 존재하며 ‘時間’의 흐름 속에 살면서 온갖 ‘事物’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¹⁾ 따라서 공간 위치와 시간 위치는 인간의 모든 인식체계의 바탕이 된다. 본고에서 말하는 위치어는 바로 이러한 공간 위치와 시간 위치를 나타내는 어느 특정한 언어의 어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²⁾ 각 언어에서 해당 언중들이 갖는 인식체계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한다면, 각 언어에서의 위치어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언중들의 인식체계를 더 깊이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위치어는 한국어에서 공간적 또는 시간적인 선후관계, 즉 공간과 시간의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1) 민현식(1991),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2)」,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참조.
- 2) 공간적 위치 표현은 어휘 외에 달리 문법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간적 위치 표현은 어휘 외에 시제 체계로 오히려 현상의 선후 관계가 더 세밀하게 분별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위치 개념이 어휘 범주로 나타나는 위치어만 살피고자 한다.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앞’·‘뒤’와 그들에 해당되는 한자어인 ‘전’·‘후’이다.³⁾

똑같은 뜻을 가진 고유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지만 지금까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밀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어에서 ‘앞’·‘뒤’와 같이 공간적 또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前[qián]’·‘后[hòu]’가 한국어에 유입된 이후 고유어의 세력과 서로 경쟁하면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주로 나타내고 아주 국한된 환경에서만 공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으로 고유어 ‘앞’·‘뒤’도 외래어의 세력에 밀려 의미와 사용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유입된 한자어와 공존하게 된다. 물론 ‘앞’처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나타내는 다의어가 됨으로써 간신히 시간 표현으로 남게 된 특수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공간은 감각적 인식에, 시간은 정신적 인식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 발달 과정에서 항상 공간어가 시간어로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고유어 ‘앞’·‘뒤’도 공간어로부터 시간어로 전이되는 과정을 가졌는데 한자어 ‘전’·‘후’가 유입되어 ‘앞’·‘뒤’ 대신 보다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어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본고는 이처럼 유의 관계에 있는 ‘앞’·‘뒤’와 ‘전’·‘후’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을 밝혀내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불어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 언어는 시시각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뒤쫓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 위치와 시간 위치를 표시하는 어휘적

3) 박경현(1987)은 공간개념어들을 ‘前後(앞, 뒤, 前, 後), 上下(위, 아래), 左右(오른쪽, 왼쪽), 內外(안, 밖, 가운데, 內, 外, 中), 側位(옆, 곁)’ 등 다섯 개 관계로 나누어 살펴왔다. 그 중에서 前後개념어가 공간적 차원 및 시간적 차원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쓰인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이 다섯 개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어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것이다.

4) 임지룡(1980), 「국어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 『국어교육연구』12, 경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참조. 예를 들면 ‘달’과 ‘해’는 그 모양과 상태의 명명인 동시에 그 구제성에 유추되어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표현이나 통사적 범주는 언어마다 그 양상과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각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인식체계의 차이점을 또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필요할 때 중국어 '前(qián)'·'后(hòu)'와 비교하면서 한국 한자어가 유입된 후 일어난 의미 변화와 그러한 의미 변화로 본 양국 사람의 인식체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도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과 3장은 사전에 기재돼 있는 표제어와 해석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고 4장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앞'·'뒤'·'전'·'후'는 한국어에서 주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독립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는 단어 속의 한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앞'·'뒤'·'전'·'후'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을 모두 살펴보면 한국어 위치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뒤'·'전'·'후'가 독립된 단어로 사용될 때 문장 속 다른 성분과 공기관계를 이룰 때가 많다. 그러한 공기관계와 선행 또는 후행하는 낱말들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앞'·'뒤'·'전'·'후'의 실제 사용 양상 그리고 그들 서로 간의 차이점도 한층 더 명백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초 자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국어대사전 전자사전자료, 하나는 2001년 세종계획 기초말뭉치 자료이다. 전자는 광범위하게 한국 언어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의 모든 낱말들을 수록한 것이고, 후자는 한국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온갖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⁵⁾

5) 본고에서 사용되는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2001년 결과물 중의 기초말뭉치 자료이다. 2001 세종계획 기초말뭉치의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책-인문(18%), 책-상상적 텍스트(18%), 책-예술론 문화론(4%), 책-체험 기술적 텍스트(4%), 신문(29%), 잡지-총류(11%), 잡지-사회 환경 공해(8%), 구어-회화 전사자료(4%), 기타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앞'·'뒤'·'전'·'후'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을 제시하고 의미 성분 분석을 시도한다. (2장)
-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앞'·'뒤'·'전'·'후'로 시작하는 이음절 낱말을 뽑아낸 다음에⁶⁾ 단어 형성 과정에서 '앞'·'뒤'·'전'·'후'가 나타난 의미적 특성에 따라 낱말들을 분류한다. 이차적으로 '앞'·'뒤'·'전'·'후'가 단어 형성 과정에서 의미 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힌다. (3장)
- 다. 말뭉치 자료에서 '앞'·'뒤'·'전'·'후'가 명사로 쓰이는 예문을 모두 뽑아서 '앞'·'뒤'·'전'·'후'의 앞 어절과 뒤 어절이 된 낱말들의 빈도수를 출력한다. 규칙적으로 나타난 낱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앞'·'뒤'·'전'·'후'와 공기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낱말들을 품사 또는 의미별로 분류한다.⁷⁾ 삼차적으로 '앞'·'뒤'·'전'·'후'가 공기관계에서 의미 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힌다. 더불어 '앞'·'뒤'·'전'·'후' 서로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도 검토한다. (4장)

3. 선행연구

아직까지 위치어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비하다. 시간어에 대해서는 시제 범주와 같이 고찰하거나 개별 어휘의 용법, 의미, 기능을 살핀 논저가 몇 편 있으나, 공간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는 아직 못하고 있다. 특히 '전'·'후'와 같이 공간적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비출판물-생활편지 실용문(4%).

- 6) 실제로 작업했을 때 '앞'·'뒤'·'전'·'후'로 시작하는 삼음절 낱말, 그리고 '앞'·'뒤'·'전'·'후'로 끝나는 이음절 낱말과 삼음절 낱말을 모두 뽑아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7) 공기관계가 아니지만 문장에서 앞뒤 어절로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원 문장을 찾아서 직접 확인한다. 예를 들면, '...르 때 앞(에서, 에, 으로)'의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에 '때'와 '앞'이 공기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앞'이 시간 표현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관계에서도 시간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위치어 연구는 이강로(1978)이다. 이강로(1978)은 일찍이 '上'·'下'를 구성성분으로 한 낱말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의미 특징을 밝힌 바가 있다. 이에 의하면, '상'은 '수입', '오르는 동작', '왕도가 가까이', '남쪽', '위쪽', '우수하고 높음' 등 의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와 반대로 '지출', '내려가는 동작', '왕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북쪽', '아래쪽', '열등이고 낮음' 등 의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같이 다루는 연구는 뒤늦게 진행되었다. 전수태(1996)에서는 전후 개념을 화자 중심 또는 청자 중심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공간이라고 명명하고 반의관계를 이루고 있는 '전'·'후', 또는 '앞'·'뒤'가 쓰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전'·'후'·'앞'·'뒤'가 시간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자어와 고유어, 또는 공간성과 시간성에 모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임지룡(1980)이다. '전'·'후'·'앞'·'뒤'는 時空語에서 선후관계를 나타내어 '전'은 '앞', '후'는 '뒤'와 유의관계에 있으나, '앞'은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다의어라고 하였다. 그 외에 '상'·'하', '위'·'아래', '좌'·'우'의 의미 전이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위치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박경현(1987)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경현(1987)은 공간개념어를 '上下·前後·左右·內外·側位' 등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본 용법과 의미 파생들을 두루 살피었다. 전후개념어 '앞/뒤'의 핵심의미는 대상의 눈이 향하는 쪽, 진행하는 쪽,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쪽, 화자나 청자가 對面 또는 竝向하는 쪽과 그 반대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앞/뒤'는 절대적 공간을 지정하는 방위, 시간적 선후관계, 그리고 상대적인 正負 판단 등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다섯 유형의 공간개념어에 해당되는 한자어 위치어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치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것은 민현식(1990)이다. 공간명사 중에서 시간개념어로 전이되어 가장 잘 쓰인 것이 전후개념어라고 하면서 '전'·'후'·'앞'·'뒤'의 의미 변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또는 위치어를 은유의 관점에서 분석한 김충욱(2000)에서는 '앞'은 긍정적이고 정직하며 미래

지향적인 반면에, ‘뒤’는 부정적이고 부정적하며 과거지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다 어휘의미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종선(1992)에서 위치어에 대해서 어휘의미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지만 실제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전’·‘후’·‘앞’·‘뒤’가 문장에서 쓰일 때 앞뒤 어절과의 공기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유어 혹은 한자어 한쪽에만 기울이지 않고 같이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점 또는 한자어의 유입과정을 좀더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본고는 앞으로 위치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부분적이고 기초적인 시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II. 단독으로 쓰일 때의 의미 분석

1. ‘앞’의 의미 분석

‘앞’·‘뒤’·‘전’·‘후’는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공간어에서 시간어로 전이되는 데 모두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 특성을 ‘공간’으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 특성을 ‘시간’으로 표시하겠다. 다음부터 ‘앞’이 어떤 의미 성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어의 하위분류를 시도해 보겠다.

- (1) 우리는 학교 앞 네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 (2) 거울 앞을 잘 닦아라.
- (3) 매표소에서 앞에 선 사람.
- (4)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 (5) 술값은 내 앞으로 달아 놓게.
- (6) 제 앞으로 온 편지가 있는지 봐주세요.
- (7) 우리는 앞 세대 분들의 글에서 누적된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8) 앞으로 다가올 미래.

(1)-(6)은 ‘앞’의 공간성을 나타낸 예들인데, (1)은 (학교가) 향하고 있는 쪽, (2)는 (거울의) 전면(前面), (3)은 차례에서 앞서는 곳, (4)는 (현실에) 처한 상태, (5)는 (내가) 맡은 몫, (6)은 (나)에게 (온 것)을 각각 가리킨다. (1), (2)와 (3)은 基本的이고 具體的인 의미이고, (4), (5)와 (6)은 派生的이고 抽象的인 의미이다. (1)은 만나기로 한 方位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방위’로 표시하고, (2)는 닦으려는 한 部分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부분’으로 표시하며, (3)은 선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서’로 표시하겠다. 그리고 (4)는 처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처지’로 표시하고, (5)는 술값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겠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소속’으로 표시하며, (6)은 편지를 보낸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대상’으로 표시하겠다.

(7)-(8)은 ‘앞’의 시간성을 나타낸 예들인데, (7)은 이미 지나간 시간, (8)은 장차 올 시간을 각각 가리킨다.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어는 ‘上下’ 관계나 ‘内外’ 관계처럼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7)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세대들이 앞에 있게 된 것이다. 반면에 (8)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가 앞으로 다가온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과거지향’과 ‘미래지향’ 두 가지 의미 성분을 도입하였다. 이 두 가지 의미 성분은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어를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전’이 ‘앞’에 해당된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어 형성 과정에서 각각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과 ‘앞날’은 완전히 반대된 뜻을 가지게 된다. 이외는 달리 ‘훗날’과 ‘뒤편’은 모두 과거지향이기에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 ‘앞날’과 ‘뒤편’은 글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된 낱말이지만 같은 뜻을 갖게 된 것도 지향성 때문이다.

이상의 의미 분석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어(앞/NNG)								
[+공간]						[+시간]		
[-추상]			[+추상]			[-추상]		[+추상]
[+방위]	[+부분]	[+순서]	[+처지]	[+소속]	[+대상]	[+과거지형]	[+미래지형]	예문 없음
(1)	(2)	(3)	(4)	(5)	(6)	(7)	(8)	

다음부터 ‘뒤’·‘전’·‘후’에도 이런 의미 분석이 가능할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뒤’의 의미 분석

- (9)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공간 [-추상 [+방위])
- (10)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공간 [-추상 [+부분])
- (11) 창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시가가 나타났다. ([+공간 [-추상 [+순서])
- (12)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다. ([+공간 [+추상 [-표면])
- (13) 마음이 성치 못한 누님을 때 내 버리고 간다면 그의 뒤는 누가 돌보아 주겠는가. ([+공간 [+추상 [+지원])
- (14) 뒤가 급하다. ([+공간 [+추상 [+배출])
- (15) 일을 뒤로 미룬다. ([+시간 [-추상 [+과거지형])
- (16) 수술 뒤가 좋지 않다. ([+시간 [+추상 [+결과])
- (17) 그는 성격이 괄괄하지만 뒤는 없는 사람이다. ([+시간 [+추상 [+영향])

(9)-(14)는 ‘뒤’의 공간성을 나타낸 예들인데, (9)는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 (10)은 (영화의) 마지막이 되는 부분, (11)은 선행한 것의 다음 등 구체적인 개념을 각각 가리킨다. (12)-(14)는 모두 파생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12)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표면]’으로 표시하고, (13)은 이바지하거나 도와주는 힘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원]’으로 표시하며, (14)는 사람이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배출]’로 표시하겠다. ‘뒤’는 구체적인 공간성을 나타낼 때는 ‘앞’과 공통점을 보이지만 추상적인 공간성을 나타낼 때는 ‘앞’과 사뭇 다른 의미 성분을 가진다. 이것은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의미 파생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

까 생각된다.

(15)-(17)은 '뒤'의 시간성을 나타낸 예들인데, (15)는 시간상의 다음이나 나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고 (16)과 (17)은 파생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다. (16)은 어떤 일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과]로 표시하고, (17)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향]으로 표시하겠다. 다만 '앞'과 달리 '뒤'는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의미 분석은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어(뒤/NNG)									
[+공간]					[+시간]				
[추상]		[추상]			[추상]		[추상]		
[+방위]	[+부분]	[+순서]	[표면]	[지원]	[배출]	[과거지향]	[미래지향]	[결과]	[영향]
(9)	(10)	(11)	(12)	(13)	(14)	(15)	예문 없음	(16)	(17)

3. '전'의 의미 분석

- (18) 부모님 전 상서. ([+공간] [+추상] [+대상])
- (19) 그 사람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 ([+시간] [-추상] [+과거지향] [+모호성])
- (20) 그가 본 그녀는 10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다. ([+시간] [-추상] [+과거지향] [-모호성])
- (21) 전 방송국 아나운서. ([+시간] [-추상] [+과거지향] [+경력])
- (22) 전 학기. ([+시간] [-추상] [+과거지향] [-경력])

(18)은 '전'의 공간성을 나타낸 예인데, '전'은 '앞'과 달리 겨우 파생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만 공간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앞' 대신 '전'을 쓴 것은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데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은 한국어에 유입되면서 원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공간성을 잃어버리고 다만 특정한 환경에서 '앞'의 높임말로 공간성을 나타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어의 '前'은 공간적 시간적 개념에 두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매우 다르다.

(19)-(22)는 ‘전’의 시간성을 나타낸 예들인데, (19)와 (20)은 명사의 용법이고 (21)과 (22)는 관형사의 용법이다. 보인 바와 같이 ‘전’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데 아주 생산적이다. 그러나 ‘앞’과 달리 과거지향성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9)와 (20)은 사전에서는 모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뜻이 구별되지만 결국 선행된 시간 명사의 유무에 따라 뜻이 통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1)과 (22)는 후행 명사의 성격에 따라 경력인지 아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미 차이를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이상의 의미 분석은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어(전/NGG)					위치어(전/MM)				
[+공간]		[+시간]			[+공간]		[+시간]		
[+추상]	[+추상]	[-추상]		[+추상]	예문 없음	[-추상]		[+추상]	
예문이 없음	[+대상] (18)	[+과거지향] (19)	[+미래지향] (20)	예문 없음		예문 없음	[+과거지향] (21)	[+미래지향] (22)	예문 없음

4. ‘후’의 의미 분석

- (23) 며칠 후에 다시 만납시다. ([+시간] [-추상] [+과거지향] [-모호성])
- (24) 후에 댄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시간] [-추상] [+과거지향] [+모호성])
- (25) 후서방. ([+시간] [-추상] [+과거지향])

‘후’는 단독으로 쓰일 때 시간성만 나타내며 과거지향성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後’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에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한국어와 다르다. (23)과 (24)는 (19)와 (2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명사의 유무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 분석할 때 하위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25)의 경우 사전에서는 ‘후’를 명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후서방’을 한 단어로 보고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후’의 의미 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

위치어(후/NNG)			
[+공간]	[+시간]		
예문 없음	[-추상]		[+추상]
	[+과거지향]	[+미래지향]	예문 없음
	(23) (24) (25)	예문 없음	

이상으로 '앞'·'뒤'·'전'·'후'가 문장 속에서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 어떤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고유어 '앞'과 '뒤'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보이는 반면에 한자어 '전'과 '후'는 비교적 단일한 의미로 나타난다. '앞'과 '뒤', 또는 '전'과 '후'를 구별하는 의미 성분인 '[+前端]', '앞'과 '전', 또는 '뒤'와 '후'를 구별하는 의미 성분인 '[+고유어]'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은 의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앞: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미래지향]
- 뒤: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 전: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 후: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III. 단어 성분으로 쓰일 때의 의미 분석

다음부터는 '앞'·'뒤'·'전'·'후'가 단어 형성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을 분석하기로 한다. '앞'과 '뒤'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전'과 '후'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단어 형성 과정에서 생산성이 훨씬 더 높고 의미 영역도 많이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앞'의 의미 분석

'앞'은 단어 속의 한 구성성분으로 나타날 때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은

겨우 6개 밖에 안 되는 것은 한국어 위치어에서 고유어는 공간성을, 한자어는 시간성을 주로 나타낸다는 원리가 단어 형성 과정에서도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앞’은 단어 속에서 추상적인 의미는 거의 다 사라지고 주로 구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특히 고유어와 잘 어울린다.

[+공간]-추상[+방위] :

‘앞의; 앞쪽에 있는’ ⇒ 앞길 앞내 앞널 앞넙 앞니 앞단 앞뒤 앞들 앞뜰
 앞막 앞면 앞무 앞문 앞발 앞방 앞밭 앞배 앞벌
 앞볼 앞뺨 앞산 앞설 앞앞 앞장 앞전 앞주 앞죽
 앞줄 앞집 앞쪽 앞차 앞창 앞채¹ 앞코 앞터 앞턱
 앞뚝
 ‘앞에서 본’ ⇒ 앞태

[+공간]-추상[+부분] :

‘앞부분에 있는’ ⇒ 앞굽 앞글 앞깃 앞몸 앞위 앞채² 앞판 앞품

[+공간]-추상[+순서] :

‘여러 개 가운데 앞에 있는’ ⇒ 앞항

[+시간]-추상[+과거지향] :

‘앞에서 했던’ ⇒ 앞말¹
 ‘먼저’ ⇒ 앞서

[+시간]-추상[+미래지향] :

‘다가올’ ⇒ 앞날 앞참
 ‘앞으로 할’ ⇒ 앞일 앞말²

2. ‘뒤’의 의미 분석

‘뒤’는 단어 형성 과정에서 보인 특징들은 ‘앞’과 비슷하다. 다만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 안 보였던 미래지향성은 여기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공간]-추상[+방위] :

‘뒤의; 뒤에 있는’ ⇒ 뒤걸 뒤뜰 뒤란 뒤울 뒤쪽 뒤창 뒤채¹ 뒤축 뒤춤
 뒤코 뒤턱 뒤퇴 뒤판 뒤편 뒤뚝 뒤품 뒷간 뒷골

뒷글 뒷길 뒷깃 뒷내 뒷닐 뒷는 뒷눈 뒷담 뒷대
 뒷들 뒷등 뒷막 뒷말¹ 뒷면 뒷모 뒷무 뒷문 뒷발
 뒷방 뒷밭 뒷벌 뒷벽 뒷볼 뒷볼 뒷산 뒷옆 뒷죽
 뒷줄 뒷집

- '북쪽의' ⇒ 뒤대
- '뒤에서' ⇒ 뒤땀 뒷배 뒷심 뒷짐
- '뒤에서 본' ⇒ 뒤태
- '뒤로 내민' ⇒ 뒷손¹

[+공간][-추상][+부분]

'뒷부분에 있는' ⇒ 뒤채² 뒷둥 뒷몸 뒷전¹

[+공간][-추상][+순서]

'여러 개 중에 뒤에 있는' ⇒ 뒷항

[+시간][-추상][+과거지향] :

- '다음의; 다음번의' ⇒ 뒤차 뒷장¹ 뒷전²
- '맨 나중의' ⇒ 뒤끝 뒷공
- '~한 이후의' ⇒ 뒷귀 뒷덜 뒷맛 뒤탈 뒷든 뒷말² 뒷목 뒷물 뒷셈
 뒷손² 뒷육 뒷일
- '따라하는' ⇒ 뒤꾼 뒷장²
- '다가올' ⇒ 뒷날 뒷뉘

3. '전'의 의미 분석

'전'은 단어의 한 구성성분으로 쓰일 때 뜻이 훨씬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모두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 들 중에서 아주 보기 드문 미래지향의 예도 몇 개 발견되었다.

[+공간][-추상][+방위] :

'앞의; 앞에 있는' ⇒ 전가(前家) 전경(前景) 전계(前溪) 전군(前軍) 전근(前根)
 전기(前記) 전기(前驕) 전당(前堂) 전도(前途) 전등(前燈)
 전랑(前廊) 전로(前路) 전루(前壘) 전마(前馬) 전륜(前輪)
 전면(前面) 전문(前門) 전방(前方) 전벽(前壁) 전봉(前鋒)
 전석(前席) 전선(前線) 전성(前星) 전단(前段) 전시(前翅)

	전실 ¹ (前室) 전열(前列) 전원(前園) 전작 ¹ (前作) 전장(前章)
	전장(前牆) 전정(前庭) 전정(前程) 전족(前足) 전진(前陣)
	전차 ¹ (前車) 전초(前哨) 전치(前齒) 전퇴(前退) 전행 ¹ (前行)
	전흉(前胸) 전산(前山) 전지(前肢) 전호(前號) 전폭(前幅)
	전후 ¹ (前後)
‘앞에서’	⇒ 전거(前拒) 전개(前揭) 전기2(前記) 전도(前導) 전배(前排)
	전배(前陪) 전위(前衛) 전장(前裝) 전치(前置)
‘앞으로’	⇒ 전수(前垂) 전왕(前往) 전진(前進) 전행2(前行) 전향(前向)

‘前途’와 ‘前程’은 ‘미래; 장래’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前’의 의미만 고찰하기 때문에 단어의 은유적인 의미는 무시하고 본의에만 주목해서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여기서 나온 대부분 단어들은 ‘후’로 시작된 단어들과 대응을 이룰 수 있는데 가끔 후행어의 성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胸(가슴) 자체가 ‘+전면’이란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는 어울릴 수 있지만 ‘후’와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

[+공간]-추상[+부분] :

‘앞쪽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 전경(前頸) 전뇌(前腦) 전단(前端) 전두 ¹ (前頭)
	전문(前文) 전반(前半) 전부(前部) 전위(前胃)
	전장(前腸)
‘앞부분’	⇒ 전략(前略)
‘아래 부분에 있는’	⇒ 전박(前膊) 전완(前腕)

‘前膊’과 ‘前腕’에서 ‘前’자가 아래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은 특이한 용법이 다. 반대로 윗부분을 가리키는 ‘?後膊’과 ‘?後腕’이라는 말은 없다. 팔을 펼쳤을 때 눈으로 보아 아래팔이 위팔보다 더 멀리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前舌’과 ‘後舌’의 말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본체와 연결돼 있는 부분을 항상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끝이 되는 부분을 항상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게 아닐까 생각된다.

[+공간]-추상[+순서] :

‘여러 개 가운데 앞에 있는’	⇒ 전권(前卷) 전련(前聯) 전차 ² (前車) 전편(前篇)
------------------	---

[+시간|-추상][+과거지향] :

- '이전의; 지난날의' ⇒ 전감(前鑑) 전계(前計) 전고(前古) 전공(前功)
 전과(前科) 전과(前過) 전관(前官) 전금(前金)
 전궤(前軌) 전념(前念) 전력(前歷) 전례(前例)
 전모(前母) 전방(前紡) 전배(前杯) 전번(前番)
 전보(前報) 전부(前夫) 전부(前婦) 전비(前非)
 전사(前史) 전사(前事) 전서(前書) 전성(前聖)
 전세(前世) 전습(前習) 전식(前式) 전신(前身)
 전신(前信) 전실²(前室) 전실(前失) 전심(前審)
 전악(前惡) 전안(前案) 전어(前語) 전언(前言)
 전업(前業) 전은(前恩) 전의(前誼) 전의(前議)
 전인(前人) 전작²(前作) 전작(前酌) 전적(前績)
 전전(前前) 전전(前電) 전정(前情) 전제(前帝)
 전조(前兆) 전죄(前罪) 전주(前主) 전주(前住)
 전지(前志) 전직(前職) 전집(前集) 전차(前此)
 전채(前債) 전책(前策) 전처(前妻) 전철(前哲)
 전철(前徹) 전판(前判) 전편(前便) 전폐(前弊)
 전표(前票) 전한(前恨) 전함(前銜) 전항(前項)
 전행³(前行) 전험(前驗) 전현(前賢) 전혐(前嫌)
 전혼(前婚) 전회(前悔) 전후²(前後) 전훈(前勳)
 전날(前-) 전달(前-)
- '이전예; 지난날예' ⇒ 전낙(前諾) 전문(前聞) 전술(前述) 전왕(前往)
 전임(前任) 전진(前陳) 전취(前娶) 전패(前敗)
- '먼저의' ⇒ 전건(前件) 전기(前期) 전단(前單) 전량(前涼)
 전렴(前斂) 전배(前輩) 전불(前佛) 전사(前四)
 전신(前腎) 전연(前燕) 전자(前者) 전조(前條)
 전조(前趙) 전진(前秦) 전진(前塵) 전차³(前車)
 전채(前菜) 전촉(前蜀) 전한(前漢)
- '먼저' ⇒ 전구(前驅) 전발(前發) 전약(前約) 전제(前提)
 전주(前奏) 전진(前震)

이상으로 '전'의 의미를 네 가지 하위부류로 나누었지만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후행어의 품사 및 의미에 따라 해석을 달리했을 뿐이다. '전'은 주로 한자어와 많이 결합하는데 '전날, 전달'과 같이 고유어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前日, 前月'보다 '전날, 전달'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한자 '前'이 한국어에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이미 정착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 이외에 아래와 같이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리’ ⇒ 전납(前納) 전도(前渡) 전려(前慮) 전매(前賣) 전불(前拂)
전지(前知) 전차(前借)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미리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점은 ‘먼저’와 다르다.

‘미숙한 것’ ⇒ 전배(前胚) 전암(前癌)

사물의 발전 단계에 있어 아직 덜 발전된 상태를 말한다.

‘전생의’ ⇒ 전겁(前劫) 전분(前分) 전생(前生) 전연(前緣) 전인(前因) 전제(前際)
‘전생에’ ⇒ 전정(前定)

‘전’이 ‘전생’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불교 윤회 사상이 옛날부터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이 처음에 불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선인의’ ⇒ 전계(前戒) 전고(前誥) 전구(前矩) 전규(前規) 전서(前緒)
전설(前說) 전종(前蹤) 전휘(前徽)

‘전대의’ ⇒ 전기(前紀) 전열(前烈) 전왕(前王) 전유(前儒)

‘오전의’ ⇒ 전장(前場)

‘바로 직전의’ ⇒ 전년(前年) 전대(前代) 전삭(前朔) 전석(前夕) 전세(前歲)
전소(前宵) 전야(前夜) 전월(前月) 전일(前日) 전조(前朝)
전주(前週) 전차(前次) 전추(前秋) 전춘(前春) 전회(前回)
전날(前-) 전달(前-) 전해(前-)

‘이미 죽은’ ⇒ 전배(前配) 전비(前妣)

[+시간][-추상][+미래지향] :

‘앞날의’ ⇒ 전망(前望)

‘다음의’ ⇒ 전참(前站)

그러나 공간 혹은 시간 어느 쪽에서도 원만한 해석이 안 된 몇 개의 전문 용어가 있다. 전두²(前頭), 전강(前腔), 전방(前房), 전지(前地) 등이 있다. 추후의 작업으로 의학 사전 등 전문 용어 사전을 참고해서 '前'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한다.

4. '후'의 의미 분석

'후'도 단어 형성 과정에서 대단한 생산성을 보여 주고 있다.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와 비교해 보면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단어의 한 구성성분으로 공간 개념에도 두루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성의 예는 하나 밖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간][-추상][+방위] :

- '뒤에 있는; 뒤의' ⇒ 후가(後架) 후가(後家) 후각(後脚) 후광(後光)
 후군(後軍) 후궁(後宮) 후근(後根) 후근(後筋)
 후기(後騎) 후단(後段) 후단(後端) 후당(後堂)
 후대(後隊) 후록(後錄) 후룡(後龍) 후륜(後輪)
 후면(後面) 후문(後門) 후미(後尾) 후방(後方)
 후배(後背) 후벽(後壁) 후병(後兵) 후비(後備)
 후산(後山) 후상(後廂) 후수(後水) 후수(後綬)
 후시(後翅) 후실¹(後室) 후열(後列) 후엽(後葉)
 후신(後腎) 후원(後園) 후원(後苑) 후위(後衛)
 후익(後翼) 후자(後者) 후장(後章) 후전(後殿)
 후정(後庭) 후족(後足) 후좌(後座) 후주(後註)
 후지(後肢) 후진(後陣) 후초(後哨) 후퇴(後退)
 후파(後波) 후편(後便) 후포(後圃) 후폭(後幅)
 후건(後件) 후경(後勁) 후경(後景) 후론(後論)
 후서(後序) 후흉(後胸)
- '뒤에서' ⇒ 후기1(後記) 후배(後排) 후배(後陪) 후장(後裝)
 후종(後從) 후치(後置) 후견(後見) 후술(後述)
 후원(後援)
- '배후의' ⇒ 후언(後言)
- '뒤를' ⇒ 후계(後繼) 후속(後續)

‘뒤쪽으로’ ⇒ 후굴(後屈) 후류(後流) 후송(後送) 후진¹(後進)

[+공간]-추상[+부분] :

‘뒷부분에 있는’ ⇒ 후경(後頸) 후구(後軀) 후뇌(後腦) 후두(後頭)
후문(後文) 후반(後半) 후부(後部) 후장(後腸)

[+공간]-추상[+순서] :

‘여개 개 가운데 뒤에 있는’ ⇒ 후렴(後敍)

[+시간]-추상[+과거지향] :

‘다음에; 나중에’ ⇒ 후고(後顧) 후소(後素) 후고(後考) 후금(後給)
후독(後毒) 후불(後拂) 후생(後生) 후수(後手)
후식(後食) 후오(後五) 후임(後任) 후주(後奏)
후창(後唱)

‘다음 가는; 다시’ ⇒ 후실²(後室) 후가(後嫁) 후금(後金) 후당(後唐)
후량(後凉) 후량(後梁) 후망(後望) 후모(後母)
후차(後車) 후부(後夫) 후분(後分) 후사(後四)
후삼(後三) 후신(後身) 후야(後夜) 후연(後燕)
후열(後閏) 후위(後魏) 후장(後場) 후조(後趙)
후주(後周) 후주(後酒) 후증(後症) 후진(後晉)
후진(後秦) 후처(後妻) 후촉(後蜀) 후취(後娶)
후편(後篇) 후한(後漢) 후항(後項)

‘이후의’ ⇒ 후탈(後頰) 후미(後味) 후과(後果) 후념(後念)
후기(後期) 후담(後談) 후배(後輩) 후번(後番)
후보(後報) 후산(後産) 후숙(後熟) 후일(後日)
후작(後作) 후진(後塵) 후집(後集) 후천(後天)
후필(後筆) 후학(後學) 후회(後悔) 훗날(後-)
훗일(後-) 훗국(後-)

‘뒤날의’ ⇒ 후기²(後記) 후도(後圖) 후감(後鑑) 후감(後勘)
후계(後戒) 후난(後難) 후려(後慮) 후명(後名)
후문(後聞) 후사(後事) 후약(後約) 후연(後緣)
후영(後榮) 후우(後憂) 후증(後證) 후폐(後弊)
후해(後害) 후환(後患) 후회(後會) 후제(後-)

‘뒤늦게’ ⇒ 후각(後覺) 후래(後來) 후발(後發) 후진²(後進)
후언(後彦) 후조(後調) 후지(後知) 후행(後行)

‘후대의; 후세의’ ⇒ 후곤(後昆) 후대(後代) 후사(後嗣) 후속(後屬)
후손(後孫) 후승(後承) 후예(後裔) 후운(後胤)
후인(後人) 후잉(後仍) 후현(後賢) 후철(後哲)

- '내세의' ⇒ 후불(後佛) 후성(後聖) 후세(後世) 후제(後際)
- '뒷부분' ⇒ 후략(後略)
- '다음다음' ⇒ 후년(後年)
- '다음' ⇒ 후월(後月) 후주(後主) 후주(後週) 후침(後站) 후달(後-)
- '남은' ⇒ 후액(後液)

[+시간[-추상][+미래지향] :

- '이미 죽은' ⇒ 후배(後配)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한자어에서 실제의 의미와 글자의 본의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몇 개의 예가 있었다. 후강(後腔), 후명(後命), 후방(後房), 후계(後裔), 후기(後氣) 등이다. 이것은 본고의 내용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이상으로 단어 형성 과정에서 '앞'·'뒤'·'전'·'후'의 의미 변화를 검토한 셈인데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위치어	독립된 단어	단어 속에 형태소
앞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미래지향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미래지향
뒤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전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미래지향
후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	[-전단+고유어+공간+시간+과거지향+미래지향

IV. 공기 관계와 사용 빈도

기초말뭉치 자료를 모노콘크 프로그램(Monoconc Pro)에서 검색한 결과, '앞'·'뒤'·'전'·'후'는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 각각 11,159개, 8,994개, 7,899개, 6,602개의 예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어절 빈도수 조사를 통해서 '앞'·'뒤'·'전'·'후'의 앞 어절과 뒤 어절이 된 낱말들의 빈도수를 살펴보고 규칙적으로 나타난 낱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앞'·'뒤'·'전'·'후'와 공기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앞'의 공기 관계와 사용 빈도

'앞'은 후행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선행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빈도수가 10번 이상이 된 낱말들만 예로 들었다.⁸⁾

장소명사 : 집(163), 시청(43), 학교(41), 가게(39), 마을(37), 방(35), 정문(30), 건물(29), 대사관(23), 교문(20), 청와대(19), 극장(19), 도서관(18), 무덤(18), 성당(17), 역(15), 회관(14), 청사(14), 현관(13), 사무실(11), 서울역(11), 엘리베이터(11), 식당(11), 본관(10), 병원(10), 정거장(10), 창고(10)

사물명사 : 문(130), 눈(93), 책상(59), 거울(43), 방문(42), 탁자(36), 마이크(29), 코(24), 카메라(23), 난로(22), 텔레비전(20), 컴퓨터(14), 차(12), 구멍(10), 식탁(10)

인칭명사 : 사람(50), 국민(41), 어머니(18), 대중(17), 아버지(16), 남자(13), 여자(12), 박사(11), 신(11)

인칭대명사 : 우리(66), 자기(41), 그녀(27), 내(12)

추상명사 : 죽음(18), 현실(15), 말(14), 역사(11)

관형사 : 그(146), 맨(56), 저(23), 이(18)

부사 : 바로(79)

(동사) 관형사형 어미 : -ㄴ(25)/-는(79)

(명사) 소유격조사 : 의(541)

(인칭명사) 의존명사 : 들(272), 남(40), 씨(16)

'앞'은 거의 모든 장소명사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성을 나타내는 데 아주 생산적이다. 그리고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갖추는 사물을 가리키는 사물명사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인칭명사, 인칭대명사, 추상명사 그리고 일부 관형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은 명사로서 부사와의 결합에서도 무척 자연스럽게 보인다. 또는 '앞'은 어떤 문법적 장치를 통해서 선행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 명사일

8) 본고에서 사용되는 말뭉치는 표준화된 코퍼스가 아닌 것을 밝혀둔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낱말 빈도수는 표준화된 빈도수가 아니고 단지 낱말들의 출현 경향을 보이기 위해서 제시된 것들이라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경우에는 소유격조사 '의', 동사인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는'을 취하는 것이다. 일부 인칭명사인 경우에는 의존명사 '들, 님, 씨'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 선행할 수 있는 동사가 극히 제한적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지켜보다, 있다, 계시다' 등 네 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

'앞'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교적 규칙적인 공기관계를 보인다. 예가 많지 않아서 빈도수가 5번 이상인 것을 모두 뽑아낸다.

장소명사 : 바다(26), 광장(23), 골목(10), 도로(8), 주차장(7), 거리(7), 뜰(6), 공터(5), 트랙(5)

사물명사 : 의자(21), 해바라기(5), 유리창(5)

사건명사 : 시위(11), 노제(8)

인칭명사 : 사람(9), 세대(5)

추상명사 : 이야기(7)

기타 : 뒤(7)

예상대로 '앞'은 명사를 수식하는 선행 명사로 쓰일 때 장소명사와의 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앞'이 후행할 때와 달리 일부 사건명사, 인칭명사 및 추상명사와 결합할 때 시간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은 이러한 공기 관계를 이루었을 때 적용되는 원리가 단어 형성의 원리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뒤'의 공기 관계와 사용 빈도

'뒤'는 후행명사로 쓰일 때만 규칙적인 공기 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간명사 : 년(150), 며칠(79), 얼마(71), 한참(32), 달(31), 이틀(30), 시간(29), 쫘(27), 분(26), 사흘(25), 일(18), 주일(16), 개월(15)

사건명사 : 해방(15), 취임(11), 회담(11), 출범(10), 선거(10)

장소명사 : 집(23), 무대(22), 카운터(17)

사물명사 : 등(82), 걸음(11), 귀(10)

부사 : 잠시(23), 조금(22), 바로(22) 훨씬(21)

관형사 : 그(678), 맨(18), 그런(15)
 인칭대명사 : 우리(10)
 (동사) 관형사형 어미 : -ㄴ(3559)/-은(443)
 (명사) 소유격조사 : 의(416)
 (인칭명사) 의존명사 : 들(19)

‘뒤’는 장소명사, 사물명사보다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시간명사 및 사건명사와의 결합이 더욱 생산적이다. 동사가 선행할 경우 관형사형 어미 ‘-ㄴ/은’이 필수적인 문법적 장치인데 ‘앞’의 경우와 달리 거의 다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또는 ‘잠시, 조금, 훨씬’처럼 시간 개념에 많이 쓰이는 부사와도 아주 자연스러운 결합을 이루고 있다. ‘뒤’가 인칭대명사와의 결합이 매우 비생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3. ‘전’의 공기 관계와 사용 빈도

‘전’은 명사로 후행하거나 관형어로 선행하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관형어로 쓰일 때는 과거의 경력을 나타낸다.

명사로 후행하는 경우:

시간명사 : 년(1255), 얼마(409), 며칠(226), 해(131), 달(124), 일(59), 시간(55), 분(51), 개월(40), 하루(40), 주일(30), 이틀(29), 사흘(24), 쫘(20), 보름(14), 열흘(14), 세기(14)

사건명사 : 결혼(66), 해방(25), 전쟁(25), 시작(15), 방학(12)

부사 : 오래(301), 조금(167), 훨씬(28), 바로(14), 방금(14), 쯤(10)

관형사 : 그(123)

(동사) 명사형 어미 : 기(1871)

(명사) 소유격조사 : 의(14)

관형어로 선행하는 경우:

인칭명사 : 대통령(125), 총장(45), 의원(40), 총리(27), 회장(22), 장관(21), 사장(15), 부총리(11)

‘전’은 명사로 쓰일 때 가장 압도적인 공기관계는 명사형 어미인 ‘기’와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간명사, 사건명사 또는 시간 개념에 많이 쓰이는 몇 개의 부사와도 자연스러운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관형사로 쓰이는 선행어가 ‘그’ 밖에 없다는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은 관형사로 쓰일 때 후행하는 명사가 모두 한결같은 직업명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4. ‘후’의 공기 관계와 사용 빈도

‘후’는 명사로 다른 선행어에 후행하는 용법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명사 : 년(252), 열마(114), 며칠(90), 한참(50), 시간(49), 달(48), 일(31), 주일(30), 개월(28), 분(28), 이틀(25), 쫘(15), 사흘(14)

사건명사 : 해방(139), 결혼(72), 졸업(55), 대전(34), 방과(32), 식사(32), 출산(25), 전쟁(21), 출범(19), 취임(18), 광복(18), 사건(16), 귀국(16), 퇴근(15), 2차대전(15), 통일(14), 퇴직(14), 사용(14), 휴전(14), 수술(14), 발생(14), 선거(14), 퇴임(11), 혁명(11), 목욕(10)

부사 : 잠시(268), 조금(14)

관형사 : 그(649), 그런(19)

(동사) 관형사형 어미 : -ㄴ(2084)/-은(317)

‘후’는 시간명사와 사건명사 뒤에 두루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뒤’와 비슷하다. 따라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표현에서 ‘후’와 ‘뒤’는 바꿔 쓸 수 있다. 다만 사건명사 뒤에, 특히 문어체에서 ‘후’는 ‘뒤’보다 더 많이 애용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 ‘-ㄴ/은’을 통해서 선행동사와 결합한다는 점도 동일하지만 뜻밖에도 ‘뒤’는 ‘후’보다 이런 형식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앞’·‘뒤’·‘전’·‘후’가 공기관계에서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앞’은 단독으로 쓰일 때나 단어의 구성성분으로 쓰일 때는 시간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문장 성분과 공기관계를 이룰 때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간 개념만 나타낸다. 반대로 ‘전’은 단어의 구성성분으로 쓰일 때와 달리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만 쓰이게 된다. 따라서 ‘앞’과

‘전’은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 쌍이다. 그러나 ‘뒤’와 ‘후’는 그렇지 못하고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항상 경쟁적인 위치에 처하고 있다. ‘뒤’는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들과의 공기관계에서 ‘후’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항상 절대적인 우세를 확보하고 있다.

V. 결 론

이상으로 ‘앞’·‘뒤’·‘전’·‘후’가 독립된 단어로서, 단어 속의 한 성분으로서, 또는 공기관계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 ‘앞’은 고유어로서 공간 개념을 주로 나타내는 반면에 ‘전’은 한자어로서 시간 개념을 주로 나타낸다. 같은 경우에, ‘뒤’는 고유어로서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후’는 한자어로서 시간 개념만 나타낸다.

단어의 구성성분으로 쓰일 때, ‘전’·‘후’는 한자어로서 대단한 생산성을 보이는 반면에 ‘앞’·‘뒤’는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는 물론 공간 개념을 나타낼 때도 제한이 보인다.

공기관계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앞’·‘뒤’·‘전’·‘후’ 서로 간의 차이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앞’은 공간 개념을 주로 나타내는 반면에 ‘전’·‘후’는 시간 개념을 주로 나타낸다. ‘뒤’는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두루 나타낼 수 있다. ‘앞’은 주로 장소명사, 사물명사와 공기관계를 이루고, ‘뒤’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 동사의 결합, 시간명사, 사건명사와 공기관계를 이루며, ‘전’은 주로 명사형 어미 ‘기’와 동사의 결합, 시간명사, 사건명사와 공기관계를 이루고, ‘후’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 동사의 결합, 시간명사, 사건명사와 공기관계를 이룬다.

‘앞’·‘뒤’·‘전’·‘후’는 모두 과거지향적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 극소수지만 ‘앞’이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예들 중에서 ‘앞으로’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의미 특성을 가지는 예도 있다. 또는 단어

의 한 성분으로 쓰일 때는 '앞' 뿐만 아니라, '전'·'후'도 미래지향적인 의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어의 위치어를 연구하는 데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토 방법이 필요한데 시간과 능력의 제한으로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더욱 차분한 마음으로 더욱 넓은 범위 안에서 위치어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을 다짐한다.

참고문헌

- 김충옥(2000), 「개념적 은유의 공간론적 고찰」,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노대규(1988), 「공간 표시어의 의미론」, 『매지논총』 4, 연세대출판부, pp. 1~61.
- 민현식(1990),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1)」, 『국어학』 20, 국어학회, pp. 47~73.
- 민현식(1991),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2)」,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pp. 836~860.
- 박경현(1986), 「전후 개념어 ‘앞/뒤’의 의미 분석」, 『국어교육』 5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147~182.
- 박경현(1987), 『현대국어의 공간개념어 연구』, 한샘출판사.
- 박지영(1996), 「‘길’, ‘바깥’, ‘속’, ‘안’의 의미 분석: 복합어 구성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한갑(1978), 「고유어의 한자어 대체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올가 웨스타(2001), 「한국어 위치표시 어휘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로(1978), 「한국 한자어의 어휘 의미의 연구-上·下자를 구성 요소로 한 낱말을 중심으로-」, 『한글』 162, 한글학회, pp. 245~272.
- 임지룡(1980), 「국어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 『국어교육연구』 12, 경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p. 111~126.
- 임지룡(1984), 「공간 감각어의 의미 특성」, 『배달말』 9, 배달말 학회, pp. 119~137.
- 임지룡(1989), 국어 대립어의 상관 체계 연구, 형설출판사.
- 전수태(1996), 「공간 개념어의 반의 구조」, 『웅진어문학』 4, 웅진어문학회, pp. 389~421.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223~247.
- 홍종선(1992), 「국어의 위치어 연구」, 『홍익어문』 10,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홍익어문연구회, pp. 459~473.